

가격 오르고 물량도 없고… 수입콩 대란에 두부제조社 ‘한숨’

국산콩 보호명분 ‘국영무역’ 시행 직후 공급 줄이고 공매제도 도입 공매가 입찰가격 경쟁, 中企 부담 中企 “공매제도 없애고 직배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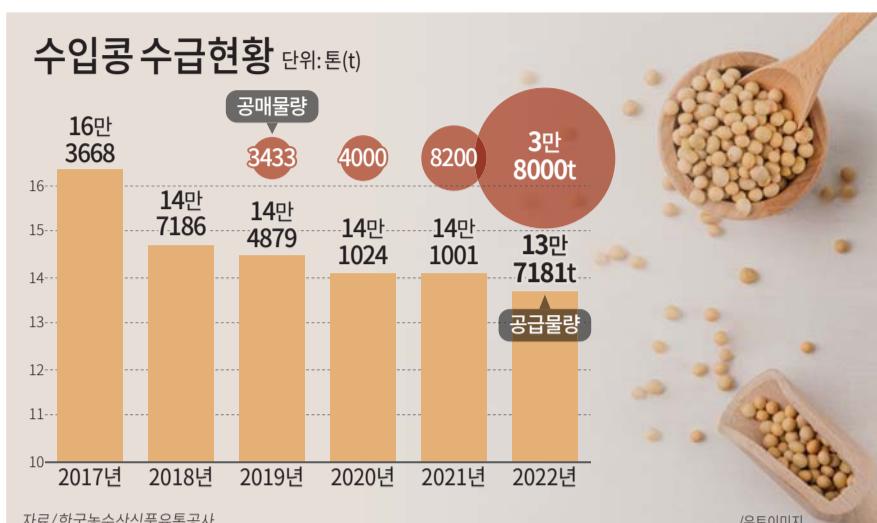
1800여 개에 가까운 두부 제조 중소 기업들이 수입콩 부족과 높은 가격 때문에 사면초가다.

특히 정부가 국내산 콩 보호를 위해 수입콩을 업체에 직접 공급(직배)하는 물량을 줄이고, 2019년부터는 가격 경쟁을 부추기는 공매제도를 도입하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선 수입콩 공매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중소기업계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17년 당시 16만3668t(t)이었던 직배 물량은 2020년엔 14만1024t까지 줄어들더니 올해엔 13만7181t 수준에 그쳤다.

수입콩을 이용해 두부 등을 제조하는 기업들은 aT를 통한 국영무역(직배 또는 공매)이나 수입권공매, 수입권배분



가운데 3회, 총 4500t이 최고가로 낙찰됐다.

특히 지난 4월27일 공매에선 6개 업체가 최고가로 입찰에 참여했지만 모두 낙찰받지 못해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들이 울며겨자먹기로 높은

가격을 써내도 대기업에 밀리고, 물량

부족으로 최고가에도 수입콩을 제때 가

져가지 못하는 웃지못하는 현상이 발생

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은 지난달 농식품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현행 수입콩 공매 제도는 최고가로 응찰해도 물량이 많은 자를 우선 낙찰하기 때문에 규모가 적은 영세기업은 물량 배정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면서 “업계와 소통해 수입콩 공매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aT는 직배가격(1100원/kg)의 15%를 가격제한폭으로 입찰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업체가 최고가 1265 원으로 물량을 배정받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진행한 총 10회의 공매

등을 통해 조달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 물가 안정 등의 명목으로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TRQ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선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정부가 매년 수입하는 콩 약 20만t 가운데 70%가 저율 관세로 들여오는 물량이다.

TRQ를 통한 수입콩 공급량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6만t 수준을 오가다 올해엔 19만6821t까지 늘어났다. 지

난해 4만7715t이었던 FTA 수입권 공매·배분 물량도 올해는 5만561t까지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집밥 수요가 늘고 수입콩 수요도 덩달아 증가해 TRQ 물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반적인 물량증가에도 불구하고 단체 또는 개별 기업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직배물량이 줄어들고, 최고가 경쟁입찰을 해야하는 공매 물량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중소기업들은 수입콩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운데 3회, 총 4500t이 최고가로 낙찰됐다.

특히 지난 4월27일 공매에선 6개 업체가 최고가로 입찰에 참여했지만 모두 낙찰받지 못해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들이 울며겨자먹기로 높은 가격을 써내도 대기업에 밀리고, 물량 부족으로 최고가에도 수입콩을 제때 가져가지 못하는 웃지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올해 7월 이후 5회에 걸쳐 국영무역 공매를 통해 1만900t을 추가 공급하고, 9월 이후에도 업계 필요량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aT의 식품산업통계정보사이트에 따르면 11월 중순 대두 가격(시카고 상품거래소 기준)은 2019년 당시 t당 328.95달러에서 350.44달러(2020년)→505.06달러(2021년)→575.25달러(2022년)로 크게 올랐다.

수입콩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상황에서 국내 농작물 보호, 물가 안정 명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중소기업들에게 부메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IRA 대응력 높이는 LG엔솔… 美 탄산리튬社와 공급계약

컴파스 미네랄과 6년 장기계약 연간 생산 탄산리튬 40% 확보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선제 대응을 위해 미국 내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소재인 탄산리튬을 확보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여의도 파크원에서 미국 컴파스 미네랄(Compass Minerals)사와 탄산리튬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LG에너지솔루션 구매센터장 김동수 전무 및 컴파스 미네랄 리튬사업부장이 탄산리튬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동수 LG에너지솔루션 구매센터장(오른쪽)과 크리스 얀델 컴파스 미네랄 리튬사업부장이 탄산리튬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이번 계약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2025년부터 6년간 컴파스 미네랄이 연간 생산하는 탄산리튬(약 1만1000t 예상)의 40%를 공급받게 됐다. 또한 양

사는 추후 하이Nick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에 대한 공급계약도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광물업체 컴파스 미네랄은 미

국 유타주에 위치한 그레이트솔트 호수(Great Salt Lake)를 활용해 황산칼륨, 염화마그네슘 등을 생산하는데 이 과정에서 버려지는 염호(brine, 리튬을 포함한 호수물)를 이용해 탄산리튬을 생산할 예정이다.

염호에서 리튬을 직접 추출하는 DLE(Direct Lithium Extraction) 공법을 통해 친환경 방식으로 리튬을 생산하기 때문에 기존 리튬 생산 업체보다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현지에서 배터리 핵심 소재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한 대응력을 한층 높이게 됐을 뿐 아니라 원재료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E

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쟁력 또한 강화할 수 있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 구매센터장 김동수 전무는 “친환경적으로 리튬을 생산하는 컴파스 미네랄과 계약을 통해 IRA 대응 뿐만 아니라 ESG 경쟁력 강화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라며 “안정적인 현지 공급망 체계 구축을 통해 북미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호주 시라(Syrah)와 천연 흑연 공급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캐나다 광물업체 일렉트라(Electra)로부터 황산코발트 7000t, 아발론(Avalon)과 스노우레이크(Snowlake)로부터 수산화리튬 25만5000t 공급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이 밖에도 ▲유럽 리튬 생산업체 독일 벌칸에너지 수산화리튬 4만5000t ▲호주 라이온타운 수산화리튬 원재료 리튬정광 70만톤 등을 확보한 바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주4일제 등 유연근무 스타트업, 만족도·생산성 높아”

다양한 근무 제도 스타트업 ‘눈길’
스토어링크, 주36시간 근무제
자발적 워크플로우 개선 효과
우아한형제들, 근무지 자율선택

‘주 30시간대 근무’, ‘주 4일제’가 다시 한번 최근 채용 시장의 큰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해당 근무 제도를 경험해 본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물론, 생산성 상승효과까지 확인되기 시작하면서다.

이에 30시간대 근무제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전략으로써 근무 혁신

제도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스타트업들이 눈길을 끈다.

이커머스 마케팅 플랫폼 기업 스토어링크는 자유로운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혁신적인 근무 제도들을 도입해 운영하면서 임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스토어링크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전체 임직원 대상 주 35시간 근무제를 적용 중이다.

근무 시간이 크게 단축된 만큼, 임직

원들은 제도 도입 직후부터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자발적으로 워크플로우를 개선하는 등 생산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왔다.

그 결과 구성원 개개인의 업무 몰입도가 극대화됐을 뿐만 아니라, 팀 단위 능률도 크게 증대됐다. 근무 시간 외 자기 계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직원들이 겪는 스트레스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부터 주 32시간 근무 제도를 운영 중인 우아한형제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근무 방식의 혁신을 시작했다. 우아한형제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 ‘근무지 자율선택제’를 도입해, 회사 구성원

모두가 근무시간 중 어디서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무실 출근, 재택 외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인 경우 해외도 무관하다.

근무 장소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도 자율 선택으로 전환된다. 올 초 도입된 개인별 시차출퇴근제에서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유연근무제의 일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기존 하루 7시간(월요일은 4시간), 주 32시간 기준에서 월 단위의 총 근무시간 내에서 개인의 업무 스케줄과 컨디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 시간을 분배할 수 있게 된다. 상대적으로 업무가 몰리지 않은 주에는 20시간만 근무를 하고 좀 더 업무에 몰두가 필요한 주에는 50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행·여가 플랫폼 여기어때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2018년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근무가 없는 주 4.5일제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주말 이후 월요일 러시아워 속 출근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등 해당 제도는 임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얼마 전에는 ‘스마트 워크 1.0’의 일환으로 삼성동 사옥을 스마트 오피스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스마트 오피스에는 고정 좌석을 두지 않고, 출근 할 때 자리를 하루 단위로 배정한다. 업무 특성에 따라, 좌석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빛나 기자 vitna@